

어문연구 제5권 1995년 2월

## Paul and Miriam in 'Sons and Lovers'

— 「아들과연인」에서의 두 사람—

박 정 길\*

Jeong-Gil, Park. (1995). Paul and Miriam in 'Sons and Lovers'.  
*Language & Literature Research*, 5, 5-31.

My own concern in this essay is to thin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ul and Miriam ; the process of their "destroying love" affairs. Lawrence takes it seriously, and he treats it under pressure of an urgent personal necessity from the inside. All life long Lawrence has had one belief that he couldn't renounce; the belief he wants to advocate is" that in a man and woman who are whole, the spiritual and sexual might be one."

And he tried to adopt this kind of 'motto' in all works of his; actually in "Sons and Lovers" Paul tries to reconcile his mind and body in his relations with Miriam. He fails to recognise his love through the physical and the spitual communion because Miriam "strives to subdue her body to her spirit", whereas Paul "strives to subdue his spirit to his body". In conclusion, they hurt themselves deeply, and they hurt each other. And the consequence is disastrous.

### I. 서 론

Sons and Lovers [이하 S/L]를 구성하고있는 모든 Chapter 중에서 Paul과 Miriam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야말로 이 소설의 중심적인 주제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랄 수 있을것이다. 더구나 이 소설은 흔히 지적되고 있는것처럼 자서전적인 요소때문에 "작가 자신에 대한 읽음꺼리"<sup>(1)</sup>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D. H. Lawrence(이하Lawrence)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적인생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영미소설)

은 예비적이고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예술의 조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강조해 두고자 하는것은 Paul과 Miriam의 관계가 당초부터 Lawrence의 성 의식에서 운위되고 있는 자신의 교리를 쫓아 이들 두사람의 관계가 실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 과정의 본원적인 실마리라 할수 있는 Paul의 가정적 배경을 알아보는것으로 이글의 논의를 시작코자한다.

## II. 본 론

S/L의 주제<sup>2)</sup>에 대하여 Lawrence자신도 언급했듯이 Mrs More은 절망을 모르는 여인이었다. 그녀의 열정은 특히 아들의 양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광부인 남편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던 보다 높은 생활을 위한 사회적 열망을 교육이 있는 소시민출신의 그녀로서는 중류계급에로의 진입이야말로 참으로 소망스러운 인생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녀는 중류계급의 교육과 사고방식에 대한 자신의 동경을 아들을 통해 인고자하는 열의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염원은 교육이 없고 육체적인 남편대신에 기품을 잃지않는 정신적인 생활을 통하여 자식들을 확고히 지배해 나가는 일이었다.

Paul은 이러한 어머니의 기대를 실현해 내려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었고 아이들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다. 그리고 형 William마저도 Nottingham으로 떠나버리고 없는 빈자리에 어머니에 의한 Paul의 구적은 경제적인 내적 의미와 함께 그는 어머니를 위한 투사가 되어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념으로 풀어갔다.

Make him stop drinking, he prayed every night. Lord, let my father die, he prayed very often. Let him not be killed at pit. he prayed when, after tea, the father did not come home from work.  
S/L 79

Paul의 소년다운 이와같은 신조는 아버지가 돌아오지않는 긴 저녁시간에 온 가족의 초조감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서 아버지가 사고로 입원하게되고 William이 London에서 갑자기 죽자 Paul은 사실상 “이집의 가장”이 되다시피 되어 있었다. Paul과 Miriam의 만남은 Paul이 어머니를 위한 대표적 투사가 되다시피 된 바로 이 무렵이었다. Mrs Morel이 인근의 Willy Farm으로 Leivers家를 방문한 것이다.

성장발달의 단계로 보면 Paul은 지금 소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때 Miriam의 나이는 겨우 14세였다. Leivers家는 “온갖 것이 종교적인 가치가 부여” 되는 그런 분위기 쌓여 있었다. 그리고 Mrs Morel의 관심사가 아들이 갖는 예술에 있었다기보다는 아들이 이루어낼 업적을 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Leivers家의 사람들은 Paul이 하고자하는 일에 대한 열렬한 성원자들으로써 이를 통하여 Paul은 그가 가진 “조용한 결단력과 참을성 그리고 맡은 일을 지치지않고 꾸준히 해낼 수 있는 끈기”를 스스로 더 잘 세련시킬 수 있었다해도 좋을것이다.

Paul의 사생첩을 보고 그 그림속에 나타난 protoplasm의 살아 숨쉬는듯한 반짝임을 찾아낸 Miriam의 혜안에 Paul이 놀라고 있는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인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내부의 반짝임이 생명의 핵심이며 밖으로 분명히 들어난 형태는 죽어버린 껍질에 지나지않는다는 Paul의 정돈된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 그림이 이렇게도 제마음에 드는 것일까요 - Why do I(Miriam) like this so? - 라는 Miriam의 물음에 대해 Paul은 이런 말을한다.

It's because-it's because there is scarcely any shadow in it; it's more shimmery, as if I'd painted the shimmering protoplasm in the leaves and everywhere, and not the stiffness of the shape. That seems dead to me. Only this shimmeriness is the real living. The shape is a dead crust. The shimmer is inside really. S/L 189

내면에 잠재된 생명의식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자하는 Paul의 이와같은 생명의식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중산층에로의 진입과 같은 외형적 인생목표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의미에서 볼때 Miriam의 등장은 Paul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Miriam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심에 파묻어 두었던 자신의 실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자기성찰의 계기를 얻었다. 동시

에 Paul은 Miriam을 통해서 지금까지 채 의식하지않고 있었던 사물에 대한 생명감을 의식하게 되고 거기서 그 무슨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자기의 감정이 새로와지거나 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이즈음 Paul과 Miriam의 잦은 산책에 이은 이들의 때 늦은 귀가는 저녁늦도록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조바심에 참기 어려운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어머니의 Paul에 대한 격앙된 감정표출은 Miriam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모처럼 황홀해지고 따듯해진 Paul의 영혼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She is one of those who will want to suck a man's soul out till  
he had none of his own left, And she said to herself; and he is  
just such a gaby as to let himself be obserbed. She will never let  
him become a man; she never will. S/L 199

어머니는 아들이 Miriam에게 끌리고 있는것이 마땅치가 않는것이다. 그러나 Paul은 어머니로부터의 위와같은 자조적인 푸념에 접하고서도 어머니가 왜 그토록 분격해 하시는지 그 깊은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있다. 어머니가 어쩌서 Paul과 자신의 관계를 걱정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은 Miriam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이들 사이에 사랑이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두 사람 다같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도 “두 사람은 다 같이 성숙이 늦은데다가 정신적 면의 성숙은 육체적 성숙보다 훨씬 늦어있었다”. 게다가 잉태와 출산이 거듭되는 농원에서 “암말이 새끼를 뱀다”는 말을 입밖에 내는것을 축스러워할 정도로 이들의 친교는 “완전히 허영계 순화된 상태“-utterly blanched and chaste fashion. S/L 201-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Paul또한 이와같은 Miriam의 결백성에 옹아 있다싶이 되어 있기 때문이랄 수 있겠다.

Miriam은 Paul을 원하고 있는 자신의 속 마음이 밖으로 퍼져 나가는것조차도 수치로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영혼이 그를 원하고 있음은 Paul이 눈치챌까봐 두려워 하고 있는 뒤엀킨 애정관을 가진 여인으로 세속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Mrs Morel과는

아주 구별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내심으로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어쩌서 나쁘단 말인가?”하고 어정쩡한 자기마음을 곧추 세우기라도 하듯 Paul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스스로 떠 보고 있으나 Paul이 지금 자기앞에 나타났어도 반감계 맞이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저 만치 먼 거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보는것이 한결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Miriam인 것이다.

우리는 Miriam의 그와같은 성격(twisted feelings)의 일면을 Paul을 향한 그녀의 정리되지 못한 기도[pray]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Oh Lord, Let me not love Paul Morel. Keep me from loving him, if I ought not to love him' ... 'But Lord, if it is thy will that I should love him, make me love him—as Christ would, who died for the souls of men. Make me love him splendidly, because he is Thy son. 'S/S 212

위의 기도문[pray]에서 포착되는 Miriam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서 잠시 그 내용을 주목해 보자: Miriam은 자신의 의지에 맡겨진 Paul에 대한 애정관과 하느님의 처분에 따라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려 하는 듯한 아주 묘한 애정관 사이에서 어쩔바를 모르고 혼돈에 빠져있는 것이다. 다소 이른 지적일 수는 있겠으나 Miriam이 이상의 기도문에서 자신의 영혼에 제시하고 있는 두가지 미결단의 회구에서 Lawrence가 개입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추상적인 물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Lawrence는 먼저 사랑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그 사랑이 Miriam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유발케 한것은 순전히 Paul 때문이지만 결국 그것은 Paul의 탓이 아니라 Miriam 자신의 문제이며 하느님과 자신의 문제로 Miriam 자신이 제물[sacrifice]이 되어야하며 이때 ‘Miriam은 Paul을 위한 제물도 아니요 자기자신을 위한 제물도 아닌, 하느님을 위한 제물이다’라고 한 것이다.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것은 Miriam 이 Paul에게 바라고 있는 바가 세속적인 사랑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Miriam은 Paul을 하느님의 아들로 상정해 두고는 ‘그렇지만 하느님 내가 그이를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함으로써 비로소 Paul의 옆에 서는 자신을 환상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Paul과 Miriam이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은 두 사람간의 애정이 '홀륭한 사상의 흐름'으로 변해가고 따라서 그들의 관계는 항상 드 높은 수준의 '추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Paul과 Miriam이 처해있는 이러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Mrs Morel이 이 두 사람에게 표출하고 있는 반감의 정도가 한결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본다.

'She exults—she exults as she carries him off from me' Mrs Morel cried in her heart when Paul had gone. She's not like an ordinary woman, who can leave me my share in him. She wants to obserb him. She wants to draw him out and obsorb him till there is nothing left of him, even for himself. He will never be a man on his own feet—she will suck him up. ' So the mother sat, and battled and brooded bitterly. S/L 237

Mrs. Morel이 아들과 Miriam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즉 그들이 자기몰래 연애질을 하고 밤이 늦도록 돌아 다니니 꽤심한 일이라는 것이다. Mrs Morel이 아들을 자기품으로 재차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은 여기서부터 본격화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Paul과 Miriam을 갈라 세우기 위한 Lawrence의 책략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더 옳다 하겠다. 위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Mrs Morel은 Miriam이 내아들을 '제 발로 설 수 없는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Paul에게는 '내가 그 애[Miriam]를 좋아해 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고 말함으로써 Paul로부터의 있을 수 있는 반발을 축소 또는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Paul이 과연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물을 차례이다.

Paul은 Miriam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어머니의 시도에 대해 저항할 의도가 없어보인다. 따라서 어머니는 정신적 교류를 이어 온 Paul을 쉽게 자신의 가까이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Miriam과의 만남은 어머니와의 정신적 교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올수 없는 Paul로서는 어머니와 자신간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만족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Miriam에게로 접근해 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

를 떠난다는 것은 전도가 불확실해지고 불안하며 자신이 매우 막연한 인간같이 느껴진다는 내부적인 위기의식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있어서 '생명의 숲'같은 존재가 되고있다. 그런데 Paul 이 Miriam을 만날 때에는 그가 어머니를 돌볼 때 자신이 느끼는 것같은 정열, 행복감, 자부심과 같은 감정 대신에 영혼 전체가 격동하는 듯한 매우 열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서와는 달리 Miriam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그녀가 지닌 지성의 총체인 동시에 실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신앙-her religion in which she lived and moved and had her being-에 대해서까지 자기가 품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만큼이나 비판적이며 냉담한 자세를 보이기까지 하는게 아닌가?

삼월 어느날 그들은 Nethermere 호수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서로 만날 때면 언제나 '추상의 세계'에 있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그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로 하자.

She seemed to want him, and he resisted. He resisted all the time. He wanted now to give her passion and tenderness, and he could not. He felt that she wanted the soul out of his body, and not him. All his strength and energy she drew into herself through some channel which united them. She did not want to meet him, so that there were two of them, man and woman together. She wanted to draw all of him into her. It urged him to an intensity like madness, which fascinated him, as drug-taking might. S/L 239

위의 말이 밝혀주고 있듯이 두 사람 관계의 변화된 모습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분명한 상황변화라면 그것은 Miriam쪽에서 더 열렬히 Paul을 욕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aul이 이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Paul이 저항하는 거부적 태도는 Miriam이 자기의 정열과 힘을 송두리째 그녀의 것으로 끌어 넣어 자신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원형질과 감축함으로써 나보다는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영혼의 만족에 빠져들므로써 자신만의 성 의식에 Paul을 빠뜨리려든다고 믿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낸 Paul만의 확고한 내심이 되고있다. Paul이 Miriam의 의식적인 자아가 나[Paul]의 실체를, '내



자신을 원할 수 있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모호하게 주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체험이 준 교훈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Paul의 요청에 대해 Miriam은 'I! Why, when would you let me take you?' S/L 240 하고 격렬히 응대 해 오기까지 하지않았는가? Paul은 이러한 Miriam의 충동적인 접근태도에 직면하게 되자 막연한 마음에 자기존재에 대한 비실체성 [insubstantial]을 한층 더 실감하는 것이다.

Miriam의 Paul에 대한 이같은 접근태도를 기술한 narration에서 밝혀지고 있는 의미있는 몇가지 암시 가운데에서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위의 narration이 Mrs Morel의 Miriam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옹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외에도 Miriam에 대한 Paul의 내면적 의식에 균열을 가져오게 했던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처음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는 점하며, Paul의 Miriam을 향한 감정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Miriam이 그녀의 까만 눈을 들어 Paul을 쳐다볼라치면 불안을 느끼는 쪽은 Paul이다. Paul은 Miriam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써 내려간 불어작문에서 확인하고는 바로 그런 사실이 그를 더 두렵게 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Paul은 '그녀의 사랑이 자신에게는 지나친 혜택이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허물은 자기의 애정에 있는 것이지 Miriam의 애정에 있지 않다'는 겸손함도 잊지 않고 있으나 이 시점에서 보다 분명해진 것은 Paul에 대한 Miriam의 애정 표현이 자신에 대한 Paul의 그것에 견줄바가 되지 못할 정도로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적극성의 내밀한 구석에는 Paul과 Miriam이 서로 융합되기에는 어려움이 큰 정서상의 판이한 관점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Paul이 Baudelaire나 Verlaine를 좋아하는데 반하여 Miriam은 Byron이나 Wordsworth의 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과 사물에 대한 정밀한 고요의 묘사, 그 자체를 좋아했으며 그것이 그녀의 신심이외에 그녀가 지닌 마음의 양식이 되고 있다. Paul과 Miriam이 함께 있게 될 때 Miriam이 Paul을 동경하며 느끼는 감흥이 그와 같은 순백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Paul쪽에서 보는 Miriam에 대한 정서는 '그대는 애무의 매력을



추억하리라'와 같은 된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까까지만해도 상대의 까만눈에서 불안을 느꼈던 쪽은 Paul이었던 것이 이제와서는 그 까만 눈에 공포를 느끼는 쪽은 Miriam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Paul에게서 Miriam은 자신이 동경해 마지않는 Paul이 갑자기 벌거숭이로 보이고, 그의 눈마저 불쾌해 보이는가 하면 자신이 그만 그 앞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말아 순식간에 온통 공포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번에 Paul쪽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는 Miriam쪽에서 Paul과 자기는 더 이상 조화할 수 없다는 깨달음의 구실을 발견한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Paul속에 확립되어 있는 어머니와의 생활은 영혼의 감각으로 Paul의 영혼을 사랑하는 Miriam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Paul은 이 세상에서 현실성을 찾을 곳이라고는 어머니밖에 더 없다는 생각에서 Miriam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위축될 필요가 없으며 Miriam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더이상 그녀의 종교적 감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Paul의 태도는 Mrs Morel이 Paul에게서 어렵게 어렵게 구하고자 애썼던 대답이었다. 그런데 Paul의 응답이 어머니가 구하고 있는 요구에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의 정신적 유대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Paul의 고조된 마음의 선택이었음을 다음의 narration을 통해서 그 과정을 접할 수 있다.

'What nonsense, Mother—you know I don't love her - I - I tell you I don't love her—she doesn't even walk with my arm, because I don't want her to.' ..... 'No Mother - I really don't love her. I talk to her, but I want to come home to you.' ..... 'I can't bear it. I could let another woman - but not her. She'd leave me no room, not a bit of room--' ..... 'And I've never - you know, Paul—I've never had a husband—not really --' S/L 260-262

어머니가 느끼는 한 스러움, 그것은 Paul의 어린마음을 자극하는데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다음순간 그는 '자기의 영혼속 어딘가에서 자신은 아직도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란 분명 어머니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동시에 Miriam을 떠나야 하는 것이 자기의 평화를 지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체념의 쓰디쓴 안심'이 Paul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Paul의 이같은 결심은 Miriam을 향해 그녀의 성의식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You don't want to love—your eternal and abnormal craving is to be loved. You aren't positive, you're negative. You absorb, absorb, as if you must fill yourself up with love, because you've got a shortage somewhere.' S/L 268

Miriam으로서는 삭여내기가 힘이들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다. 당신안에 그 무슨 부족함이 있어 남의 것을 흡수하고 또 흡수해서 부족한 자신을 채우려한다는 것이다. Paul은 사물을 감축하는 Miriam의 행위를 사물에서 심장을 들어내는 행위로 본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Miriam의 애착—이를테면 흠어진 꽃잎에 입술을 문지르는 행동—을 자제심이나 사양심도 없는 행위로 보아 이를 타박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애정표현 방식에 쫓아오지 않고 있는 Miriam의 애정표현 방식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Paul은 '자신이 취하고 있는 사랑의 자세는 사물의 혼을 피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직접 대면하는 것'임을 강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Paul이 Miriam의 행위를 시기하면 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연의 향기에 가까이 다가서고 Paul에게서보다는 사물에서 더 부드러운 향기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 Miriam에게 Paul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족감과 그것을 채워보려는 충족의 욕구가 기계적인 외침으로 Miriam을 향해서 압도해 들어온다해서 이에 예민하게 반항을 보일 Miriam은 이미 아닌것이다. Paul은 Miriam이 '항상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Paul이 보았던 Miriam의 그 사랑의 행태는 그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으며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고 보았던 Miriam의 행태 또한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히려 Miriam에게서 아직은 결별의 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Miriam을 향한 Paul만의 절대적 욕구 심리였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Miriam은 지금 자기옆에 다가오는 Paul의 육체가 사랑의 감축을 느끼게 하는 사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해 오는

무기로 보이는 것이다.

Paul과 Miriam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노출된 과정의 추이를 통해서 우리는 Paul이 Miriam을 능가하는 지성의 소유자로서 Miriam과 결별함으로써 자신이 나아갈 길을 좀 더 명백히 하고자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한다. 그리하여 그는 Miriam의 사랑에 대한 행태와 Paul의 직감적 요구에 이리저리 궁리하며 자신의 신앙속에 웅크리고 앉아있어 결정을 미루는 듯 숙고하는 Miriam의 미지근한 거부적 태도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발견의 끝은 Miriam과의 절교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주장은 기울어진 균형—a toppling balance—의 관계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자기보다 Miriam의 사랑이 더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Paul이 Miriam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확립된 생활을 하려했던 것이 사실은 상대가 욕구하는 것을 갖지 못한 자신감의 결여, 그것이 Paul의 내심에 숨겨진 ‘원체깊은 동기’였고 그래서 Miriam도 그것을 ‘인지하고 지각할 용기’를 거두어 버렸다는 것을 알때 Paul이 갖는 성의식의 굴욕감이 그가 Miriam을 떠난다하여 지워질 문제가 아님은 더 명백한 사실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Paul은 간단히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방황할때면 그것의 끝은 항상 어머니였다. Paul의 생활이 어머니에게 있었듯이 ‘어머니의 생활도 Paul속에 확립’되어 있었기때문이었다. 다음의 narration을 보자. 여기서 Paul이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정신적인 혼돈스러움은 분명 지금까지 이들 두 각각의 사람과의 역학관계에서 표출되지 않고 있었던 전혀 새로운 전기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만한 대목이라 하겠다.

And in his soul was a feeling of the satisfaction of self-sacrifice because he was faithful to her. She loved him first; he loved her first. And yet it was not enough. His new young life, so strong and imperious, we urged towards something else. It made him mad with restlessness. She saw this, and wished bitterly that Miriam had been a woman who could take this new life of his, and leave her the roots. He fought against his mother almost as he fought against Miriam. S/L 273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과거의 spiritual communion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점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Paul이 경험하는 새로운 생활에서 아들의 '새로운 삶'이 Miriam에 의해서 차지된다해도 뿌리만은 자신의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Mrs Morel이 가진 집념의 전부이다. 그런데 같은시간에 Miriam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머니의 안정된 만족감에서 반응하는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Miriam으로서는 Paul로부터 버림받은 처욕을 참아내야 하는 무거운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Paul의 영혼을 쥐고있다고 믿고 있으며 Paul과의 헤어짐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Paul이 자기에게로 올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심리적 위안을 구하는 냉정함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Paul은 어떤가? 그런데 여기에 이런말이 나타난다. 'Paul은 Miriam에게 대항해서 싸운 것과 같이 어머니와도 싸웠다.' 라는 말이 그것이다. Paul이 지금까지 구해온 사랑과 생의 방식에 그 자신이 주체적으로 간여한 적이 있었는가? 만나고 헤어지는 결별의 기준이 될만한 어떤 원칙이 자신의 내부적 결단에 의해서 판단되고 처리된 적도 없었던 것이다. Miriam과의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Paul이 Miriam을 대하는 태도마저 관념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보면 Miriam이 아니라 Paul이 오히려 자신의 성의식에 굴욕감을 느껴왔던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볼 때 Paul이 지향하는 생의 방식은 이렇다할 방향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정지된 상태에 있다.

Paul 자신이 어머니이외의 다른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사이에 그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Miriam의 존재는 위축되어 갔으며 급기야는 Miriam에 대한 자신의 잔인스런 절교선언[see S/L 231]이 나오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Paul의 행위속에 노출된 Miriam에 대한 무관심은 Paul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간단없는 위압적 강요에 의한 결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Paul이 어머니나 Miriam에게 대등한 감정으로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저항했다는 내용은 Miriam쪽에서 볼때 Paul의 주장만을 내세우려는 편향된 생각인 듯하여 그 말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Paul의 두여인에 대한 역할론중에서 특히 'He

fought against his mother...'라는 언명에 대하여 Daleski<sup>3)</sup>는 Eliseo Vivas의 견해를 좇아서 그말이 순전히 거짓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약해서 그 일부의 주장을 인용하면 'He did not fight against his mother.'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놓고 볼 때 Paul이 Miriam을 위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내보인 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겠다. 어머니가 Paul에게서 구하려 했던 지나친 소유욕이 물고온 폐해에 대하여 Miriam이 자기와 유관하다고 믿고 있는 Jessie Chambers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His mother conquered indeed, but the vanquished one was her son. In Sons and Lovers Lawrence handed his mother the laurels of victory.<sup>4)</sup>

어머니의 Paul에 대한 위압적인 사랑은 재가나 동의의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었다. 교양과 정신주의의 화신이었던 어머니 또한 Miriam속에 남아있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어머니는 남편에 의한 자기희생이라는 불행한 과거의 경험을 자기인생의 포기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들에 대한 자신의 소유욕적 사랑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그러므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소한 항변도 곧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긴장일 뿐더러 Miriam과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갈등의 핵심이 되어온 것이다. Paul이 당면하고있는 '딜레머'는 생명의 내부에서 해결책을 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기희생으로 충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Miriam을 애써 피해간 것은 Paul쪽이었으므로 다시 돌아올 쪽도 Paul임은 이 소설의 흐름이라 할것이다. Paul은 사상적으로는 불가지론자였다. 그리고 Miriam은 Paul의 변론이나 해설에 대해선 언제나 겸허한 경청자였다. 그러나 Miriam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불가지론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다. 'Miriam이 마루라면 Paul은 이 마루에다 자기의 신념을 도리깨질'하고 자기의 사상을 Miriam의 영혼을 통해서 걸러내는, 그래서 Miriam은 자기사상의 채와 같은 존재로써

Paul의 영혼을 각성토록 인도하는 역할에 만족했다. 그러나 Paul은 달랐다. Paul이 구하고자 하는것은 높은것에 대한 욕망—he desires for the higher S/L 280—을 오직 선호하는 Miriam의 생활방식도 아니고 형식과 외형을 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생활방식도 아니었다. Paul이 믿고있는 신념은 인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력을 포착하는 것만이 생명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신념에 벗어나는 그 어떤 생활방식도 모조리 배척해 버렸다. Paul이 때때로 어머니를 따를수 없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 신념의 차이 때문이었다.

어머니에게도 Miriam에게도 Paul의 이같은 원칙은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Paul이 Miriam에 대한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의견을 끝내 거역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신념의 차이 때문이었다. 먼저 Paul이 Miriam을 향해 열어보이는 생명의식에서 발견되는 태도를 보자. Paul은 관념에 얽매인 Miriam의 순수한 성의식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Paul은 항상 높은 수준의 추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Paul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또한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아들이 아무런 부정없이 따라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독선이 있었다.

아들에 대한 Miriam의 영향력이 해악적인 것이라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빚어낸 Paul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 또한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일은 Paul이 대망하는 생명력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iriam의 표백된 종교적 태도나 어머니의 정신지향적 의지에 대한 체험은 Paul로 하여금 그가 구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지금 종교적으로 의식화된 어머니의 정신주의적이고도 외향지향적 교양에 저항하고 싶다. 그래서 Paul은 어머니의 교양적 보루인 종교문제를 뒤로하고 인생문제에 대하여 어머니와 장시간 토론도 벌인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

I don't want to belong to the well-to-do middle class. I like my common people best. I belong to the common people .....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isn't in their class, but in themselves. Only from the middle classess are gets ideas, and from the

common people—life itself, warmth. You feel their hates and loves  
S/L 313.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Paul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의 온기—life itself warmth—라는 것이다. Paul의 이와 같은 인생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우선 그가 청교주의적 지성에 철저히 하여 외부지향적 정신주의를 고집하는 어머니의 인생논리에 반발하고 있는 그의 저항의식을 보았다. 이러한 저항의식은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오직 자신의 내부적 감각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고 믿는 그의 내부적 신념과 어머니의 사상이 충돌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는 진작부터 자기논리에 방해가 되는 다른 사람의 온갖 신념을 모조리 거부해 왔던 것이다. Paul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神을 깨달을 수 있는 과정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특성을 타고났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Paul이 말하는 그와 같은 세계는 생명세포의 근원인 생명의 원형질이 꿈틀거리는 세계이다. 그러한 세계에 Paul이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비적 자질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기묘한 장면이 있다.

Mrs. Morel은 석양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죄의식에 괴로운 기분이 된다. 그래서 그녀는 이 연약한 아이와 자기간에 아직도 탯줄이 그대로 연결되어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엄습 해 오는 아이에 대한 애뜻한 사랑의 감정이 Mrs. Morel의 돌연한 행동이 기묘하게 표출되고 있다. 아이에 대한 죄의식때문에 고통받는 심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원받는 기분이되고 아기에 대한 세례의식을 통하여 세심의 만족을 얻고싶었던 것일까? Mrs. Morel은 생명의 근원인 태양을 향하여 아이를 번쩍 들어 내밀고 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는 Paul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이다.

once more she was aware of the sun lying red on the rim of the hill pposite. She suddenly held up the child in her hands. 'Look!' she said 'Look, my pretty!' She thrust the infant forward to the crimson, throbbing sun, almost with relief. She saw him lift his little fist. Then she put him to her bosom again. ashamed of her impulse to give him back again whence he came. 'If he lives, 'she



thought to herself, 'what will become of him—what will he be?'  
Her heart was anxious. 'I will call him "Paul", 'she said suddenly;  
she knew not why. S/L 51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아들과 함께하는 산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수확기에 접어든 저녁나절 들뜬 어머니는 “묵힌 밭의 모퉁이에 서 있는 노적거리”가 마치 생명체처럼 살아있어 그것들이 지나가는 Paul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가운데 아들 Paul을 단숨에 예언자 Joseph에 버금가는 지위로 올려놓고 있다.

이와같은 외적 상황이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쾌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질이 일찍부터 그에게 준비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징적 기능을 갖는데 있을 것이다. Paul과 Miriam이 경험하는 이들 관계를 Paul이 체험하는 세계의 관점에서 두 사람의 자질을 생각해보자.

Paul은 Miriam에게 “순결이란 문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생각”하고 “회피함은 일종의 음의”—a sort of dirtiness—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Paul의 접근태도에 호응하여 Miriam도 마침내 궁리하고 궁리하여 Paul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중에 “서로를 완전히 소유한다함은 인생살이에서 매우 중대한 일로서 온갖 강렬한 감정이 그안에 집중되어 있다” —possession was a great moment in life. All strong emotions concentrated that S/L 347—라는 Paul의 주장을 신성시하고자 한다. 마침내 그녀는 종교적 기분으로 그에게 나를 갖게 하자는데 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Miriam이 알아차린 것은 “욕정에 불타는 까맣고 비개성적인 Paul의 눈은 그녀와는 관계가 없는 눈”이라는 것이다. Paul은 Miriam을 향해 난 어둠이 좋소, 좀더 어두웠으면 싶소, 아주 캄캄했으면 좋겠소—'I like darkness', He said. 'I wish it were the thicker—good, think darkness.' S/L 349—라고 말함으로써 Miriam이 겨우 다달은 낭만적인 감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일순간에 Miriam은 그녀가 고뇌했던 생명의 힘이 그토록 철저했던 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기분에 빠지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Paul이 체험하는 어둠의 세계는 어머니의 puritan적 지식주의나

Miriam의 종교적인 정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낮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세계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통상적인 낮의 세계는 살아있으면서도 영원의 생명감을 포착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에 도달하는 것 같은 이상하게 부드러운 기분이 드는 전혀 새로운 경험의 세계—그 어둠의 세계가 영원의 생명감을 포착할 수 있다고 믿는 Paul의 세계인 것이다. 밝은 낮의 세계와 비교되는 어둠의 세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Paul의 피할 수 없는 인생의식은 위대한 실체—the great being—와 일체가 되어서 “암흑속으로 녹아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He felt as if nothing mattered, as if his living were smeared away into the beyond, near and quite lovable. This strange, gentle reaching out to death was new to him. …… To him now, life seemed a shadow, day a white shadow night, and death, and stillness, and inaction, this seemed like being. To highest of all was to melt out into the darkness and sway there, identified with the great Being. S/L 350

“밤과 죽음과 적막과 무위가 오히려 실재하는 존재(being)”인 양 싶어지는 것이 Paul의 세계이고 보면 낮의 세계는 Paul에게 있어서 진실한 자기 神이 있는 자신의 세계—즉 어둠의 세계—를 찾아가는 통로일 따름이다. 따라서 Paul의 이와 같은 인식은 사실상 그가 체험하는 의식의 전부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생각은 Paul에게는 자기 존재의 실재를 의식하는 당연한 기본율이 되고있다.

'To be rid of our Individuality, which is our will, which is our effort—to live effortless, a kind of conscious sleep—that is very beautiful, I think; that is our after a life—our immortality.' S/L 351

자기가 Miriam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의 탈락’을 거친 Paul과의 접촉은 그녀가 종교적 절대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Paul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낭만적 사고를 통해 그와 함께 닿을 수 있는 교환의 세계에서조차도 그곳이 결국 Paul과 자신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가 될 수 없다는데 Miriam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Miriam은 Paul의 “야수적인 일면”보다는 이같은 “신비적 일면”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의 정열에 지쳐”있는

것이다.(See S/L 351-4) 따라서 Miriam은 이러한 Paul에게 자신의 “싱싱한 정열”을 줄 수 있는 기분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어둠속에서 생명감을 느낄 수 있는 본질에 닿기 위한 감동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Miriam이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 가운데 Paul과 자신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불화의 끈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있다. 우리들 사이는 기나긴 투쟁이 있어요-당신은 절 피하려고 투쟁하고 있어요-‘It has been one long battle between us-you fighting away from me.’ S/L 362-이와 같은 그녀의 평가는 두사람의 관계에 대한 시종 일관된 그녀의 정신적이고도 교양주의적 사고의 산물로써 평범한 것과의 동일시도 거부하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믿어지는 특이함과도 융합할 수 없다는 생존 의식으로 낮의 세계에 충실한 자신의 표현인 것이다. 그는 Paul이 그가 어른이 아니라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이며 그래서 자기 영혼도 자기가 스스로 잡아들 수 없는 영혼이 말라버린 존재라는 자아의식을 스스로 고집하며 만족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Miriam은 Paul이 잠시 자기자신을 떠나는 것도 언젠가는 자기자신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확신이 서있음으로써 그와의 작별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이다. Miriam의 이와같은 정신성 또한 일찍부터 준비되어 온 Miriam만의 특이한 자질에 속한다.

Paul이 Vaudelaire나 Verlaine을 좋아했던 반면에 Miriam은 Wordsworth를 좋아했다.(See S/L 257) 그는 Lincolnshire의 천지와 교회의 Arches를 “완고한 인간 영혼의 끈기”와 의지의 영원성에 비유하면서 그 자신은 Norman이요 Miriam은 Gothic이라했다.(See S/L 219) Paul과 Miriam이 펼치는 이같은 정신과 육체의 분열은 Paul쪽에서 볼때 Miriam의 지나친 종교적 열망이 자신의 정신속에 담겨있는 육체적 사랑의 충동에 소홀함으로써 두사람 모두의 육체적 욕구가 정신위주의 명분에 희생되었다고 항변하는 근거를 제공했다.-(See S/L 307 ; I can give you a spirit love, I have given it you this long, long time; but not embodied passion. )-이에 반하여 Miriam은 Paul이 고급스런 욕망과 저급스런 욕망, 이 양자를 조화시켜보려는 행동의 신중함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 남성이므로 미래를 기다리되 나중에는 그가 저급한 욕망—desires for lower—보다는 고급스런 욕망—desires for things—의 화신인 자신에게 Paul이 돌아 올 수 밖에 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고마는 관념상의 오류에 빠졌다.

이제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Lawrence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분류된 다른 세계의 사람이 분명해 진다. 그들이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즐기던 중 Hemlockstone에 이르렀을때의 일화만으로 그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하겠다. Hemlockstone, 그 비틀어지고 비비꼬인 사석위에 Paul과 Miriam이 함께 오르고 있다. Paul에게 있어서 Hemlock stone은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장인것이다. 그가 Hemlockstone에서 있음은 직관에 의해서만 체험되는 무의식 속의 황홀을 얻어내기위해 의식적 감정의 목종을 요구하는 행위랄 수도 있다할때 Hemlock stone, 그곳은 이른바 이성의 개입이 없는 순전한 감(感)에 의해서만이 교통할 수 있는 신비스런 감흥과 접촉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Miriam에게는 Hemlockstone이란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돌덩어리 일뿐이다.

그러므로 Paul이 빠져있는 세계를 Miriam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Miriam이 Paul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알고 자기 내심에 적체되어 있는 사랑의 감정을 발견하는 곳은 Hemlockstone이 아니라 그녀가 일행과 떨어져 나와 자연속에 혼자 남을때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침내 Miriam은 이같은 Paul이 자기소유가 아니라는 확신에 이르고 있다. 그녀는 무엇인가 고의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중간자가 침탈당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가 갖는 특유한 정신성을 회복하자, 그같은 Paul의 세계가 하찮은 다른 쪽의 자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Paul은 흔들림없는 자기주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즉 Miriam이 어쭙잡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Paul) 세계야말로, 자신만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온전한 자아의 자기만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렇게 등을 댄 각자의 세계에서 Miriam이나 Paul이 자기생명의 희열을 찾아나서는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조화를 이루어내기란 사실상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리고 Miriam이 Paul과의 사랑을 과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Paul이 Miriam과의 사랑을 두려워할 무렵에 Miriam에게서 아들을 떼어놓으려는 어머니의 개입은 두말할 나위없이 두사람의 오랜 친교를 모질게 갈라놓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아들을 신성한 존재로 만든 어머니가 아들의 연인인 Miriam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갈라서게 만든 것과 관련하여 'His mother conquered indeed'<sup>5)</sup>라며 Jessie가 내리고있는 평가는 Paul이 Miriam과의 관계에서 시종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의기양양한 외면상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적인 무기력이 어머니로 인한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Lawrence가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Clara라는 상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고 Paul과 Miriam의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보상적 차원에서 대상만족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마침내는 Clara를 그녀의 남편인 Dawes에게 다시 넘기는 진부한 사건처리로 narration을 전개했다고 꼬집었다.

Miriam과 Paul의 관계가 Lawrence와 Jessie와의 사이에 있어 왔던 사실에 기초를 두고 쓰여졌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Jessie로서는 자신과 Lawrence와의 과멸의 원인을 'The break came in the treatment of Miriam'<sup>6)</sup>라 하여 그녀의 불쾌했던 감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녀는 Lawrence의 Miriam에 대한 서술을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한 형언하기 어려운 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Lawrence를 일러 'His mother had to be supreme, and for the sake of that supremacy every disloyalty was permissible.'<sup>7)</sup>이라 하여 어머니때문에 Miriam의 취급이 왜곡된 데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그녀는 Lawrence를 향한 오랜세월에 걸친 헌신과 인간적 유대감을 저버린 배반의 허전함을 "Hemlet without the prince of Denmark"<sup>8)</sup>라는 말로 비유했는가하면 그녀의 Virginal quality를 왜곡한 치사스런 취급에 대한 반발로써 그를 일러 속물중의 속물—a philistine of the philistines—<sup>9)</sup>이라 했던것이다. 물론 Jessie도 자신과 그와의 생활내용에서 따온 이한권의 책이 다만 소설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 보려고 무던이도 애를 썼다했다. 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도덕과 예술은 별개

라는 Lawrence의 주장에 대한여 Jessie는 어째서 정직과 예술이 별개의 것일 수 있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See E.T.204)

Middleton Murry도 It is all wrong, humanly wrong. This man, we feel, has no business with sex at all. He is to be born a saint. ...<sup>10)</sup> ..... in S/L he conceals the truth. He can not really endure to face it in Concioussness.<sup>11)</sup>

라고 말함으로써 Jessie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면 Jessie가 저항한 것은 결국 무엇인가? Jessie는 Lawrence와 자기사이에는 'Constraint of Sex'와 같은 것은 아예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Miriam이 자신의 영혼만을 고집하기를 포기하고 Paul을 위한 제물인양 그앞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려 할 때[see S/L 351] Paul의 반응은 과연 어떠 했던가? 여기서 Paul과 Miriam의 성-sex-의식에 대한 Murry의 견해를 참고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이 갖는 성 의식에 대한 각자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Paul did not want her, but, as Mellors says in Lady Chatterley's Lovers, 'he wanted it.' Miriam did not want him, but she wanted to give himit, because he wanted it. The indulgence of their 'passion' was disastrous, because it was not passion at all. On both sides it was deliberate, and not passionate. Miriam's charity was passionate, but she had no sexual desire for Paul; Paul's need for the release and rest of sexual communion was passionate, but not his desire for Miriam.<sup>12)</sup>

Miriam은 어떠했는가? 그녀는 Mrs Morel이 인정하는 굉장한 매력-she must be wonderfully fascinating S/L 199-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날밤 Paul의 영혼 또한 Miriam과의 접촉으로 온기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Miriam이 Paul에게서 영적친교-Communion-를 원하고 있었음에랴. . . . 이때 고민하듯 낮을 돌려버린 것은 Paul이었으며, 다음 순간 Miriam의 시선을 바꾸도록 요구한 것도 Paul에 의해서였다.

She looked at her roses. .... she lifted her hand impulsively to the flowers; she went forward and touched them in worship. .... There was a cool scent of ivory roses-a white, virgin scent.

something made him feel anxious and imprisoned. The two walked in silence. S/L 189

Lawrence는 Paul의 본의를 숨기기 위한 의도적 왜곡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narration을 통해서 Paul에 대한 Miriam쪽의 무관심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급기야는 두사람 사이의 교환에 이르는 열정의 감흥을 그만 희석시키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본다. 그런 예는 도처에 있다. Alfreton 교회에서 Miriam의 영혼이 Paul을 갈구하고 있을 때에도 Paul의 열정은 Miriam의 그것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포착하기 어렵다. 여기서도 Miriam이 Paul에게 시선을 던지고 있고 그는 이에 응답하며 같이 있기는하나 그들의 관심은 전혀 별개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Miriam은 Paul과 함께 있어 그의 영혼은 '기도로 확대' 되는데 반하여 Paul은 침침한 교회의 내부가 갖는 분위기에 대해 기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Paul의 Miriam에 대한 이같은 감정처리는 Jessie에게로 가져가지 못하는 Lawrence의 감정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실마리로 간주될 수 있을것 같다.

앞에서 지적한 바 대로 Jessie가 S/L을 일러 'in Sons and Lovers Lawrence handed his mother the laurels of victory'라며 배신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같은 관계를 깨뜨린 것이 가슴 터질듯한 분노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손 치더라도, 여기쯤에서 이같은 논의에 따른 Moore교수의 논평을 참고하는 것이 이 논쟁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그는 A Personal Record에서의 Jessie의 주장과 Sons and Lovers에서의 일부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Jessie가 주장하는 바의 사건과 해석에 있어 S/L와 A Personal Record간의 차이점도 많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소설속에서 Paul은 Miriam이 지나치게 소유욕적이며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다고 꾸짖고 있지만 정작 Miriam의 원형인 Jessie는 어머니 때문에 Lawrence의 가까이에 그녀가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물론 우리도 S/L에서 Paul이 Miriam을 유혹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Jessie의 기억에는 젊은 Lawrence가 육체적 사랑-physical love-과 정신적 사랑-spiritual love-의 틈바구니에서 당혹해하는 한사람의



puritan이오 성-sex-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어쨌든 Moore교수는 Jessie를 포함해서 여러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한 소설외적 논평에 대하여 Lawrence가 오직 소설을 썼을 뿐-He was after all writing a novel-<sup>13)</sup>이라는 점을 상기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S/L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고려의 대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와같은 권유-fiction과 biography는 분리되어야한다.-에도 불구하고 Frieda Lawrence [Jan. 30. 1951] 마저도 Moore교수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Jessie에 대해 동정론을 펴고있지 않은가?

I was trying hard to remember about 'Miriam'..... Lawrence felt unhappy about hurting her feelings. she was deeplyhurt. she was the 'sacred love', you know the old split of sacred and profane. she tries to defend her position by insisting on the 'purity', which gives the show away. Humanly as a whole she wasn't the person his mother was, so the best horse won. she bored me in the end. There was some correspondence between Lawrence and her about the book, but when she had read it, she never wrote again. In writing about her, he had to find out impersonally what was in their relationship, when so much had been good. But what was insufficient in her, how could she admit or even see it ...<sup>14)</sup>

이와같은 논의에 대하여 J. F. C Littlewood 교수도 Moore교수와 마찬가지로 S/L가 성공적인 예술작품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see, Cam. Quarterly 1969-70] 그러나 Lawrence조차도 Miriam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Frieda의 사연이 과연 사실이라면 Jessie를 포함하여 Lawrence나 Frieda 할것없이 모두가 다 fiction과 biography를 혼돈하고 있었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가지 생각은 이에 관한 여러가지의 주장이 내포하는 의미의 혼돈스러움에 대해서 저마다 가지는 감정을 유추해 내기보다는 이를 접하는 독자나 비평가가 이소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응용하거나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쪽으로 생각을 좁혀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게된다.

Frieda의 말대로 Jessie는 부당하게 취급된 Miriam의 순수성을 옹호코자—She tries to defend her position by insisting on the purity—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과연 Jessie는 Lawrence가 부당하게 취급한 배신의 처절한 감정(See E.T. 202-5)을 그녀가 죽기 9년전인 1935년에 D. H. Lawrence: A Personal Record by E.T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그녀의 입장을 담담하게 밝혀두고 있는 것이다. Frieda가 말한대로 Jessie가 그토록 옹호하려 했던 'purity', 그것은 그러면 과연 Lawrence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 졌을까? 그는 성—sex—에 대한 Victorian conception을 바꿔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성—sex—만을 taboo로 남겨놓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므로 그가 Sons and Lovers에서 Paul과 Miriam을 통해서 그의 오랜 성—sex—에대한 관념을 호도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고 있었다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Lawrence에게는 자신과 Jessie사이의 이같은 개인적인 경험이 Paul/Miriam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적교리를 창도하려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되었음직도 하다 하겠다. Lawrence에게 있어서 하나의 실패는 그자체가 또다른 관계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과정은 Paul에게서도 정확히 적용되고 있다. Miriam에게서 떠나간 Paul은 결국 Clara라는 여성을 찾아가고 있다. 그는 Clara가 갖는 생명의 야성—Something strange and blind and ruthless in its primitiveness S/L 430—에 심취하지만 다시 Clara는 Paul에게 당신은 나를 밤에만 사랑했지, 낮에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it seems as if only love me at night—as if you didn't love me in the daytime. S/L 437—고 꾸넘한다. 이에 반하여 낮에만은 혼자있기를 원했던 것이—In the daytime I want to be myself S/L 437—이 Paul이었고 밤은 당신께 자유—the night is free to you. S/L 437—라는 것이 Paul의 주장이었다.

그들 관계는 서로 다른 이같은 주장에 의해 실로 간단히 청산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만만찮은 Clara의 항변이 매우 의도적임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Clara의 이같은 항변은 Paul의 홀로서기를 재촉하는 촉매제가 되었는데가하면, Lawrence에게 있어서는 빠뜨릴수 없는 자아이론의 매우 강력한 기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III. 결 론

Lawrence는 일찍이 '나의 위대한 종교는 지성보다도 더 현명한 것으로, 피(blood)와 살(fresh)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신은 바로 자신-My God, I am Myself!<sup>15)</sup>이었고 그 자신이 표방하는 진정한 삶의 태도는 자신의 욕구에 응답하는 것-The real way of living is to answer to one's wants-<sup>16)</sup>이라 하여 본능의 부름에 답할 수 있는 삶만이 그가 지향할 삶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따라서 Clara의 저항이 어떠한 Paul의 삶은 Lawrence가 정해놓은 이같은 사적종교의 교리가 의도하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따르는 일만이 중요했다할 수 있다.

그는 남자가 남자이고자하고 여자가 여자이고자 하기위하여 그 매개가 되는것이 사랑이며 사랑만이 남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신념의 저류에는 생동하는 자아의 본능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그는 자기 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야 할 방법을 찾아 나섰고 그리하여 찾아낸 자기사상은 남녀간의 신비적교환, 그 어둠의 실체를 밝히는 것의 실현이야말로 생애대한 참다운 태도라고 믿었다.

"The central law of all organic life is that each organism is intrincally isolate and single in itself' ..... The second law of all organic life is that each organism only lives through contact with. ... other life ..... We have our very individuality in relationship.<sup>17)</sup>

이러한 그의 태도와 S/L을 관련지어 생각해 볼때 Paul과 Miriam 그리고 Clara의 관계에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은 Lawrence 개인의 Wish-fulfilling fantasy-<sup>18)</sup>일 수도 있으며 Lawrence가 자기 주장에서 펼쳐 보이고있는 rules에서와는 달리 남성 우월적 사상의 열정적인 신봉자로서 사랑에 관한 한 male/female을 동등시하는 등가의 가치론자가 아니라 female이 male의 주변적이고도 부속적인 전유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지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어쨌든 사랑에 대한 Lawrence의 태도는 Paul로 하여금 Miriam이나

Clara와 같은 여성이 바라는 소유나 지성의 정신주의를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접촉을 통해 영혼의 소리를 들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생명주의에 충실한 개인의 자유를 욕구하는 태도였다. 종장에 이르러 Paul이 어머니와 사별한 후 '모든것을 박탈당하고 죽음을 향해 표류'<sup>19)</sup>하는 상태에 놓였어도 Paul은 혼자힘으로 세상을 헤쳐 나갈것을 다짐함으로써 결코 패배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도, 또 소설의 주제가 필연적으로 끝나야 할 내용과는 다르게 어머니를 따라 암흑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아 도시를 향해 방향을 선회시킴으로써 자신의 전령인 Paul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장하려 한것도, Paul을 통해서 Lawrence가 자기 신념을 승화시켜 보려는 강렬한 자아의 발로로 보기에 어색함이 없다. 그가 이 소설을 일러 '내 청춘시절의 청산서'-it's the end of my youthful period-<sup>20)</sup>라 했듯이 Paul을 통해서 그가 다시한번 새로운 삶을 예비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Paul과 Miriam의 결별은 Lawrence의 교리가 정해놓은 필연적인 과정의 산물이었다.

### References

1. T. S. Eliot, 'Forward by T. S. Eliot' in D. H. L. and Human Existence. Father Tiverton, pp. 7-8.
2. Aldous Huxley, The Letters, London. pp. 76-7.
3. H. M. Daleski, in 'The Release; the first period'a casebook ed. by G. Salgado p. 198.
4. D. H. Lawrence A personal Record. by E. T. Cam. Univ. Press, p. 202.
5. Ibid, by E. T. p. 202.
6. Ibid, by E. T. p. 201.
7. Ibid, by E. T. p. 203.
8. Ibid, by E. T. p. 203.
9. Ibid, by E. T. p. 203.

10. Middleton Murry, D. H. Lawrence and 'Sons and Lovers' source and criticism. ed. by E. W. Tedlock, Jr., N. Y. 1965 p. 162.
11. Middleton Murry, Son of Woman, London. 1951 p. 32.
12. Ibid, M. Murry, 1951 pp. 34-5.
13. H. T. Moore, The Life of D. H. Lawrence, George Allen 1951 p. 95.
14. J. C. F. Littlewood, Cam. Quarterly vol. 4 1969/70 p. 338.
15. Ibid, by A. Huxley, p. 94.
16. Ibid, by A. Huxley, p. 95.
17. D. H. Lawrence, A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Heinemann, 1964 p. 62 & 190.
18. The D. H. Lawrence Review, vol. 8. 1975, p. 265.
19. Ibid, by A. Huxley, p. 77.
20. H. T. Moore, Collected Letters of D. H. Lawrence, vol. 1 Heinemann 1962 p. 205.



